

교차로 교통지옥은 양보 없는 '꼬리물기' 탓

광주 남구 동아병원 앞 교차로 일주일 동안 지켜 보니

♣. 지난 5일 오후 6시 59분. 광주 남구 동아병원 앞 주월교차로. 빨간등 정지신호에도 농성동에서 백운동, 진월동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들이 앞차에 비짝 차를 갖다 붙였다. 이들 차량이 중앙에 멈춰서면서 길에 막힌 직진 차량들은 분노의 경적 소리를 뿜어냈다. 교차로 사거리에 형광색 옷을 입은 교통경찰의 '존재감'은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 꼬리물기 차량에 대한 제지도 없었고, 그나마 뒤엉킨 현상 정도도 없이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광주일보 취재팀이 일주일(2월25일~3월5일) 가량 지켜본 퇴근 시간대 남구 주월교차로는 꼬리물기와 지정차로 위반 등이 끊이지 않았다. 교통경찰관 한 두 명이 매일 지키고 있어도 꼬리물기와 지정차로 위반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정차로 위반·암체운전 횡행 직진차량에 막혀 우회전 지연 출·퇴근 시간대 혼잡 되풀이 교통경찰은 지도·단속 '뒷집'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꼬리물기의 경우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퇴근길 내내 발생하면서 교통 체증을 불러왔다. 지난 3일 오후 6시56분에는 백운동으로 나가는 차량이 정지 신호를 예측하지 않고 앞선 차들이 밀려있음에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경적이 터져나왔다. 꼬리물기는 불법이고 단속 대상이다. 하지만 경찰은 단속도, 제지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인지 경찰이 버젓이 지켜보는데도 앞차 뒤에 달라붙었다.

이전 신호에서는 직장 퇴근버스가 비슷한 방식으로 꼬리물기와 지정차로 위반이 주범으로 지목되는데도, 교통경찰의 지도·

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에서 운전 중 꼬리물기 단속 건수는 지난해 195건이다.

지난 2017년 3619건, 2018년 2591건에 걸친 무려 10배 이상 줄었다. 사실상 단속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경찰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같이 실제 사망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를 주로 단속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꼬리물기가 단속 대상이라는 인식이 사라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지정차로 위반도 비슷하다. 경찰은 서구 풍암동에서 남구 주월교차로를 거쳐 백운동 고가로 진입하는 차량들을 위해 우회전 전용 차로를 1개에서 2개로 늘렸다.

하지만 전용차로를 늘리면서도 지도 단속을 하지 않으니 직진을 할 운전자들이 버젓이 우회전 전용 차로에 멈춰서면서 다른 차량들의 이동을 막아 체증을 불러오고 있다. 일주일간 지켜본 결과, 5번의 신호 중 2번 꼴로 우회전 전용 차로를 직진 차량들이 막아서면서 교통 흐름을 방해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경찰들은 바로 옆에서 지켜본 단속·교통지도도 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우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을 위해

멈출 경우 신호위반으로 적발이 가능하다.

지난 3일 오후 6시 39분, 택시가 우회전 전용 차로에 멈춰서면서 다른 차량들이 나머지 차로로만 우회전을 하고 있었다. 경찰관은 지켜보기만 했을 뿐 지도·단속은커녕, 진행을 유도하는 행동도 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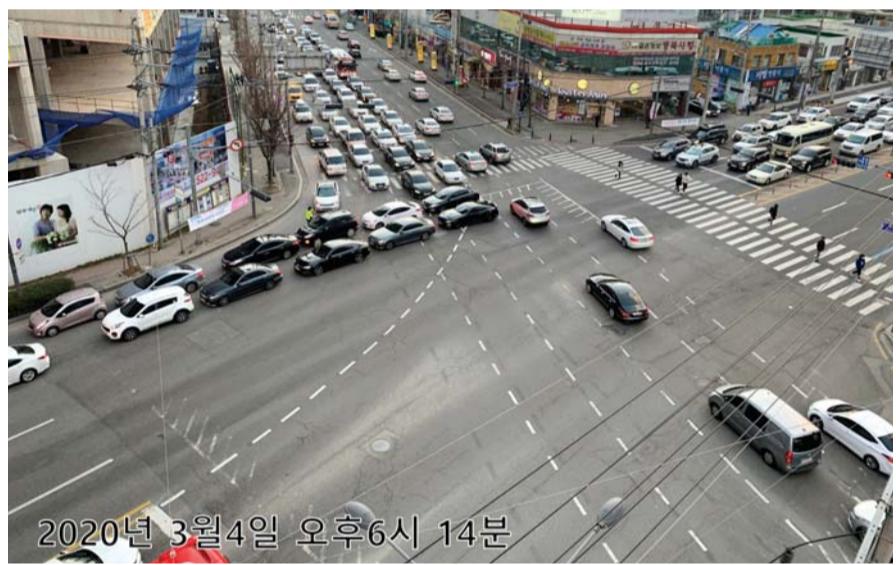
지난 5일 오후 6시19분에는 풍암동에서 동아병원쪽으로 향하는 제네시스 차량이 우회전 전용차선인 3차로에서 멈춰서 수십 여대의 차량들이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제네시스 차량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광주지역 대표적 혼잡 지역인 광천사거리도 비슷한 상황으로, 퇴근길이면 시민들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만 교통 경찰의 지도·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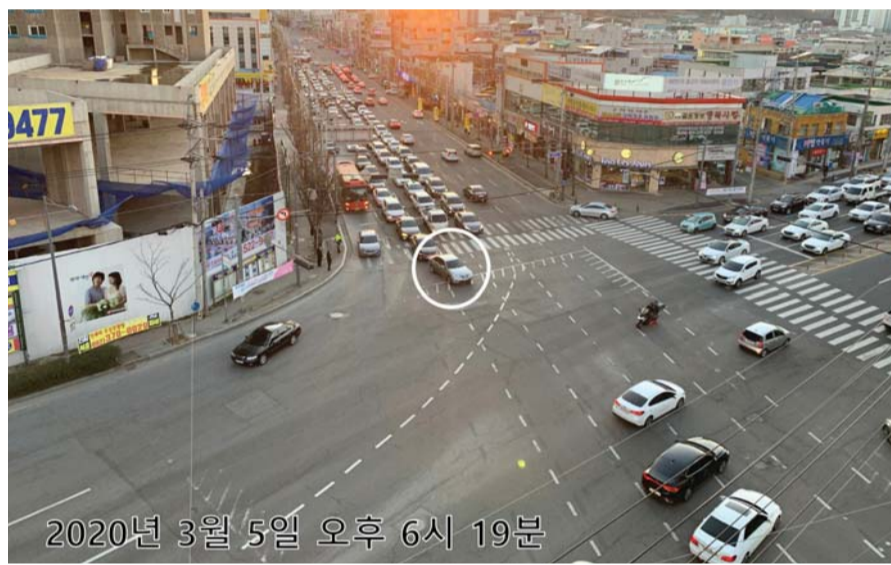
광주경찰청 소속 교통 단속·지도 경찰은 ▲동부 12명 ▲서부 18명 ▲남부 12명 ▲북부 20명 ▲광산 20명 등 80명이다.

광주 남부경찰 관계자는 "주월교차로에서는 꼬리물기 단속보다는 주로 사망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무단횡단 등을 위주로 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단속을 손을 댄 것은 아니고 주변에 캠코더를 통해 영상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글·사진·김현영 기자 young@



2020년 3월 4일 오후 6시 14분
지난 4일 주월교차로 앞에서는 농성동에서 백운동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이 '꼬리물기'로 직진 차량들을 막아서 극심한 정체 현상이 빚어졌다. 경찰이 현장을 지키고 있지만 단속을 하지 않는 탓에 정지 신호에도 차량들이 밀려들었다.



2020년 3월 5일 오후 6시 19분
지난 5일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 정경. 풍암동에서 동아병원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원안)이 우회전 전용차로에 멈춰서면서 뒤따르던 차량 수십대가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바로 앞에서 지켜보고 있다.

오늘의 날씨

| | | | |
|-----|-------|-----|-------|
| 해돋이 | 06:50 | 달뜨기 | 19:15 |
| 해질 | 18:36 | 달집 | 07:21 |

흐린 하늘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구름 많겠다.

| | | | | | |
|----|-------|-------|-----|-------|-------|
| 광주 | 비온뒤 갬 | 7/8 | 보성 | 비온뒤 갬 | 7/9 |
| 목포 | 비온뒤 갬 | 6/7 | 순천 | 비온뒤 갬 | 10/11 |
| 여수 | 비온뒤 갬 | 10/11 | 영광 | 비온뒤 갬 | 6/8 |
| 나주 | 비온뒤 갬 | 7/9 | 진도 | 비온뒤 갬 | 6/10 |
| 완도 | 비온뒤 갬 | 8/10 | 전주 | 비온뒤 갬 | 7/9 |
| 구례 | 비온뒤 갬 | 9/9 | 군산 | 비온뒤 갬 | 7/10 |
| 강진 | 비온뒤 갬 | 8/9 | 남원 | 비온뒤 갬 | 8/8 |
| 해남 | 비온뒤 갬 | 6/9 | 흑산도 | 비온뒤 갬 | 6/10 |
| 장성 | 비온뒤 갬 | 7/9 | | | |

◇ 바다 날씨

| | | | | | | |
|-------|--------|--------|---------|---------|---------|---------|
| | | 오전 | | 오후 | | |
| | | 풍향 | 파고 (m) | 풍향 | 파고 (m) | |
| 서해 남부 | 원바다 | 북서~북 | 1.0~2.0 | 북서~북 | 1.5~3.0 | |
| | 면바다(북) | 북서~북 | 2.0~4.0 | 북서~북 | 2.0~4.0 | |
| 남해 서부 | 원바다 | 북서~북 | 0.5~1.5 | 북서~북 | 1.0~2.0 | |
| | 면바다(서) | 북서~북 | 2.0~4.0 | 북서~북 | 2.0~4.0 | |
| | | 면바다(동) | 서~북서 | 1.5~3.0 | 북서~북 | 2.0~4.0 |

◇ 생활지수

| | |
|------|----|
| 감기 | 보통 |
| 뇌졸중 | 보통 |
| 미세먼지 | 보통 |

◇ 물때

| | | |
|----|----------------|----------------|
| | 간조 | 만조 |
| 목포 | 07:48 20:17 | 02:25 15:01 |
| 여수 | 03:23 15:48 | 09:49 22:04 |

◇ 주간 날씨

| | | | | | | |
|-------|-------|-------|-------|-------|-------|-------|
| 11(수) | 12(목) | 13(금) | 14(토) | 15(일) | 16(월) | 17(화) |
| ☀ | ☀ | ☀ | ☀ | ☀ | ☀ | ☀ |
| 2/10 | 0/15 | 5/10 | -1/10 | 2/12 | 2/14 | 3/16 |

광주 남구, '고독사 제로마율' 등 12개 포용복지 사업

광주 남구는 주민들의 삶과 연관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사업에 선정,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고독사 제로마율' 등 12개 포용복지 사업을 전개한다.

남구는 9일 "민관협력 체계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 구성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해 연말까지 4대 분야 12개 세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되는 4대 분야별 사업은 ▲

고독사 제로마율 구축(3개 사업) ▲ 주민 중심 공동대응 네트워크 구축(3개 사업)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 브랜드 사업(4개 사업) ▲ 민·관 협력을 통한 공공서비스 확충(2개 사업) 등이다.

우선 4대 분야 사업 중 가장 큰 주목을 받는 분야는 고독사 제로마율 구축 사업이다. 남구는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독거노인 등 100명을 대상으로 가정에 스마트 플러그를 장착해 대상자의 생활패턴을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하는 사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현영 기자 young@

광주·전남 지난해 교통사고 건수 늘고 사망자 줄어

광주 발생건수 8.9% 증가
전남 사망자 11.9% 감소

광주·전남지역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8119건으로, 1년 전(7432건)에 비해 9.2%가 늘었다. 부상자 수도 1만2977명으로 전년(1만1916명)보다 8.9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4.7%(75명→49명)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남도 비슷하다.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만950건으로 전년(9840건)보다 11.3%(1110건) 증가했다. 이 기간, 전남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295명으로 전년(335명)에 견줘 11.9% 감소했다.

특히 전남지역의 경우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가 16.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이 때문에 경찰이 도심 제한속도 하

향, 보행환경 정비사업 등 사람 중심으로 교통안전 체계를 정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적으로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한 반면, 사고와 부상자는 증가세다. 작년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3349명으로, 전년보다 11.4% 줄었지만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2만9600건으로 전년(21만7148건)보다 5.7%, 부상

자 수는 34만1712명으로 전년(32만3037명)보다 5.8% 늘었다.

광주시는 이같은 점을 고려, 올해 ▲ 교통사고 발생건수 5% 줄이기 ▲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3년 연속 제로마율 달성 등을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14곳),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과속단속용 CCTV 설치(99곳)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목포대, 한국연구재단 개인 기초연구 사업 3개 선정

목포대학교의 3개 연구과제가 한국연구재단 '2020년 상반기 개인 기초연구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이번 과학기술 분야 개인 기초연구 사업은 연구자의 창의적 기초연구 능력을 높이고, 연구 역량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체지방 치료제 개발과 주거환경 소음 분야 설계 연구,

동영상 기반 한우 행동 디러닝 연구 등으로 향후 과제별 3~5년간 총 12억여 원을 지원받는다.

이상찬 산학협력단장은 "3개 사업을 신청한 개인 기초연구사업 중견 연구 분야에 3개 과제나 선정된 것은 목포대의 연구 역량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창의성 높은 연구와 기초연구 능력을 배양해 리더 연구자로서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

「2020 전기안전관리 유공자(개인·단체)」 포상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국민의 전기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전기재해 예방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전기안전관리 유공자(개인 및 단체)를 발굴하여 아래와 같이 포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포상대상

- 민간 및 공공부문
 - 전기안전관리 및 제도 정착에 헌정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전기안전관련 기술 및 우수 전기제품의 개발·보급으로 안전관리 수준향상 및 사고예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 시공, 감리업무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기술향상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전기안전 홍보·계몽 및 교육 등 전기안전의식 고취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전기안전 관련사항의 기획, 제작, 보도,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거나 지원한 개인 또는 단체
 - 전기안전관리 행정구현, 국민봉사, 지역사회 전기안전에 솔선수범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공직자 또는 단체 등

4 공적 적용기간

- 최근 5년간 공적을 우선 적용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5년 이상, 장관·시장·포장 3년 이상 해당분야 공적

2 포상종류

- 산업 훈포장
- 국무총리 표창
-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표창
- 대통령 표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5 제출서류 및 접수기간

- 추천서 1부(사전 1매 부착)
-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증빙자료 각 1부(한국원본파일 포함)
- 재직(경력) 증명서(공무원은 인사기록 요약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단체는 대표자 및 업체전경사진) / 정부포상 대상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 법인현황(장관표창이상 대상자에 한함) 1부
- 접수기간 : 2020년 4월 20일까지 (4월 20일자 우편 소인분까지)

3 추천권자

- 개인 또는 단체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추천 가능(본인 추천은 불가)
- 대한민국 국민, 소속인의 기관장, 지사·지부장, 경제·사회단체장, 관련단체(협회)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등

6 포상 추천제한

- 재포상 금지기간 미경과자(단체표창3년, 훈장7년, 포장5년, 대통령·국무총리·장관표창 3년)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및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

7 접수처

- 주 소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우편번호 55365) 한국전기안전공사 고객지원부(지역본부 및 지사 접수 가능)
- 연 락 처 : (063)716-2411~8 / fax (063)716-9645
- ※ 접수방법 : 본사 및 사업소(지역본부 및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

8 수상자 발표 및 포상시기

- 심사 후 수상자 확정 시 개별통지
- 포상시기 : 2020년 9월(예정)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행사 시

9 기 타

- 제출된 자료와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적조서는 최대 15페이지, 공적증명 자료는 최대 100페이지가 넘지 않도록 작성 (A4 크기 기준)
- 추천서, 공적조서 서식 등 포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훈포털(www.sanghun.go.kr),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참조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및 가까운 사업소에 문의

주 최 | 산업통상자원부

주 관 | 한국전기안전공사